

■ 그림 여행



꽃다발

(Bouquet de Fleurs c. 1886)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 - 1890)  
(캔버스에 유채 65 cm x 35 cm 액상 프로방스 그라네 미술관)

빈센트 반 고흐는 꽃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다. 그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해바라기, 보라색 아이리스, 아몬드 꽃, 장미 꽃, 사과나무 꽃, 배 꽃, 카네이션, 양귀비 꽃,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까지 수없이 많다. 그가 그린 꽃들은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구성, 거칠면서도 섬세한 질감까지 고흐 특유의 개성을 숨김없이 나타낸다.

고흐가 그린 꽃 그림은 거의 다 보지 않았나 생각할 즈음 액상 프로방스에 있는 작은 그라네 미술관에서 글라디올러스를 그린 이 그림을 만났다. 그라네 미술관은 작고 아담한 미술관으로 남 프랑스 휴양지 액상 프로방스의 동네 한가운데 주택처럼 자리잡고 있다. 인상과 화가

들이 자리잡고 수많은 명작을 남긴 그 곳에서 한가로이 오후를 보내던 초여름의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 우연히 들어갔던 미술관이었다.

그라네 미술관에는 액상 프로방스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화가 세잔의 작품들이 아주 많았고, 피카소의 작품도 꽤 볼 수 있었는데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고흐의 글라디올러스 꽃다발이었다. 그림을 그린 연도를 보면 1886년으로 고흐가 아직 네덜란드에서 습작을 하던 시절이다. 그래서인지 훨씬 나중에 그렸던 꽃 그림들에 비해 다소 거칠고 투박하다. 하지만 어두운 배경에 불타 오르듯 피어난 글라디올러스 꽃다발은 손으로 만져질 것처럼 생생하고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 해서 고흐의 꽃이라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

가끔 여름에 글라디올러스를 사다가 꽃아 놓으면 하루 이틀 안에 꽃망울이 활짝 피어나 온 방안을 환하게 밝히다, 또 금세 하루 이틀 새에 꽃잎이 떨어진다. 시들기 시작하는 글라디올러스는 초라하고 지저분하기까지 해서 울적한 마음이 되어 얼른 갖다 버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짝 피어 타오르는 화려한 모습을 잊을 수 없어 또 사러 가게 된다.

반 고흐의 이 그림 속에도 이미 시들어 꺾이고 있는 꽃송이가 그려져 있다. 마지막이 다가 오는데도 오로지 위를 향해 피어 오르는 글라디올러스의 모습이 너무나 짧은 절정기를 불태우고 사라져간 그의 일생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 싶어 한참 들여다 보았다. 꽃을 그린 그 정물화가 마치 그의 초상화인 것처럼. 고흐 불굴의 정신이 꽃속에 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규모는 작지만, 소중한 명화로 가득 찬 그라네 미술관에서 반 고흐의 글라디올러스 그림을 보고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거리로 나왔을 때, 쏟아지던 비는 어느샌가 그치고 맑고 파란 하늘에 남 프랑스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김동백》

**플러스 약국**  
Pharmacy Plus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약사 **황광진** Ken Hwang  
서울대 약대 졸업  
Doctor of Pharmacy

- + 무료배달
- + 건강 상담 환영
- + 저렴하고 빠른 처방조제
- + 각종 비타민

**T. (714)956.3830**  
1012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라팔마 & 유클리드 명동칼국수 옆)

**제니미용실**  
Hair & Body Works  
Special

- 반영구화장 <4D자연눈썹> \$250 \$150
- 펌 + 컷 \$40
- 염색 + 컷 \$40

헤어·네일 스테이션 렌트, 스킨케어 룸렌트, 미용사 구함  
**Tel: 714.537.7445**  
9042 Garden Grovd Blvd, #100  
Garden Grove, CA 92844



MY BABY. MY STYLE.

gemgem



www.egemgem.com

Follow us on Instagram & Facebook @egemgem and get 15% off coupon!

Tel: 949-529-0715  
e-mail: info@egemgem.com